



가족 고향 나들이

박영길 · 박육철 · 박소현 작가 초대전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24일부터 열려

순창군이 오는 24일부터 옥천골미술관에서 '가족 고향 나들이'를 연다. 이번 기획전에 초대된 작가는 지산 박영길, 강산 박육철, 박소현 작가로 순창 구립 출신이다. 초대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관람료는 무료로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주중과 주말에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초대전에 참여한 지산 박영길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표준영정 제67호 장영실 준영 작가다. 대한민국 초

상화작가협회 회장과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 조어대에서 두 번이나 초대전을 갖기도 했다. 그의 DNA를 이어받은 박소현 작가 또한 남다르다.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한중국제교류전에 참가해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과 대한민국 문화공헌대상에서 특별상도 수상

했다. 이번 초대전에는 위 두 작가의 뛰어난 서양화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강산 박육철 작가의 서각작품도 구경할 수 있다. 박육철 작가는 26회에 걸친 개인전과 30여회의 초대전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현재 (사)한국서각협회 자문위원과 한국미술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지속가능 전통놀이 발전 방안 모색

전통문화전당, 24일 '전통 놀이문화 포럼'... 현시대 양상 등 발표
덴마크 레고 시각 마케팅 리드 아티스트 '레고의 변화와 비전' 도

국내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놀이의 발전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을 연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24일 전당 공연장에서 2020 전통 놀이문화 포럼-전통놀이, 현재에서 미래를 본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통놀이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전통놀이 문화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한국민속학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형호 박사가 한국민속학회의 '전통놀이 기초조사 연구'와 '전통놀이 현장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현시대의 전통놀이 전승 양상을 발표한다.

또 어린이 놀이 전문가 이상호 박사가 전통놀이의 지속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유동환 건국대 교수가 전통놀이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EBS 교육 방송에서 '뚝딱이 아빠'로 활동 중인 서정대 김홍석 교수가 '교육적 활용면에서 바라본 놀이의 창의성'을 발표하고 '아빠 놀이 백과사전'의 저자 조준후 대표도 클라우딩 펀딩 성공 스토리를 통해 전통놀이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아울러 덴마크 레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시각 마케팅 리드 아티스트가 '레고의 변화와 비전'에 대해 발표한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통놀이가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문화로 정착되는 계기, 더 나아가 미래 먹거리 방안이 도출되는 건설적 논의의 장(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7월~11월(10월 제외)까지 매월 첫 째주 토요일에 3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보따리'를 공연한다. 8월 1일에 만날 컴퍼니 KAN의 '이상한 나라의 토끼'는 명작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겨울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상한 나라의 토끼'

국립민속국악원, 이달부터 11월까지
어린이들 대상 '이야기보따리'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7월~11월(10월 제외)까지 매월 첫 째주 토요일에 3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보따리'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국악극, 연희,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획공연이다.

8월 1일에 만날 컴퍼니 KAN의 '이상한 나라의 토끼'는 명작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겨울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여왕의 안생일파티(UN-

birthday Party)에 늦지 않게 가야하는 바쁜 토끼와 호기심 많은 주인공 인수의 여정을 다룬 이미지 무용극이다. 특히 M.net '댄싱9'에서 활약한 현대무용가 인남근과 비보이 박인수가 출연하여 현대무용과 비보이 및 국악이 만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회이며, 관람은 전화(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예약을 통해 선착순 회당 100명만 관람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문화원, '시민과 함께하는 기행' 24일까지 진행

3회 걸쳐 국립익산박물관 · 4대 종교 유적지 등 찾아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에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신을 달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기행'을 실시한다.

21일과 23일은 익산문화원을 10시에 출발하여 국립익산박물관을 포함하여 내바위성당, 두동교회, 승림사, 원불교총부 등 4대 종교유적지를 돌아본다.

24일에는 익산문화원을 출발하여 춘포역, 문화예술의거리, 망모담, 보석박물관, 국립익산박물관 코스로 운행한다.

이재호 원장은 "이번 익산기행을 통해 시민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백제역사유적지구와 4대 종교성지가 있는 우리 익산에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를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



다."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문화원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익산시 테마형 시티투어와 연계한 익산문화답사를 6회 실시하여 130여명의 참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